

강진군 한우 개량 통해 1등급 출현율 높인다

우량암소 집중 육성 노력 “고급육 생산 체계 정착”

전라남도 강진군이 강진완도축협, 한국축육개량협회와 함께 1등급 한우 출현율 향상을 목표로 유전체 검사 현장 컨설팅을 추진하며 지역 축산농가 소득기반 확대를 꾀하고 있다.

15일 강진군에 따르면 한우 유전체 검사는 송아지 및 암소의 DNA를 분석해 육질등급, 성장능력 등 주요 유전 형질을 예측해 1++등급 도달 및 가능성 및 번식

능력이 높은 우량 개체는 조기 선별해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저능력 개체는 조기 도태하거나 비육형으로 전환하는 등 실제 농장 경영에 반영해 한우 개량을 가속화할 수 있는 시책이다.

대부분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의 일부 사업비로만 유전체 검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강진군은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매년 자체 사업비를 추가로 투자해 현재까지 4200두 한우 유전체 검사 및 컨설팅을 실시해 농가소득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에도 군비 8100만원을 추가로 확

보해 총 1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유전체 검사 및 컨설팅 비용을 전액 무상으로 지원해 한우 농가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으뜸한우 및 으뜸송아지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100농가, 1500두를 선정해 모근(꼬리털) 시료를 채취하고 개체별 유전능력 분석 결과를 농가가 쉽게 이해하고 경영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 컨설턴트가 농장을 방문해 1:1 현장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강진군은 고급육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해 맞춤형 한우 개량, 등급 향상 기자재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시행한 결과 한우 도체 성적이 해마다 증가해 7월 첫째주 기준 도축한우 4870두 중 1등급 이상 판정받은 한우는 3708두로 1등급 이상 출현율이 76.1%로 확인됐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한우농가의 경영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 속 유전체 검사와 현장 컨설팅 지원을 통해 고급육 중심의 생산체계를 정착시켜 농가 소득 향상과 강진 한우를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고품질 전국 브랜드로 육성 시키겠다”고 밝혔다.

강진=김윤복 기자

방송인 김태균 초청 ‘공개특강’ 영암군, 18일 청소년센터서

전라남도 영암군이 오는 18일 오후 2시 영암군청소년센터에 방송인 김태균 씨를 초청해 ‘2025 영암군민아카데미 제2회 군민초청 공개특강’을 개최한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토크콘서트 형식의 이번 공개특강은 ‘선택, 가족, 꿈, 관심’을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내며 관객들에게 웃음과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료로 진행되는 특강에 참여를 원하는 영암군민은 강연 시작 10분 전까지 공연장에 입장하면 된다.

영암군민아카데미 공개특강은 다음달 12일 박재연 상담전문가의 특강으로 이어진다.

노재영 영암군 인재육성체육과장은 “바쁜 일상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여유를 찾고, 이웃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김태균 씨의 유쾌한 에너지를 공유할 영암군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균 강사는 1994년 MBC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해 KBS 토크쇼 ‘안녕하세요’, SBS ‘영재발굴단’ 등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고, 오랫동안 SBS FM라디오 ‘2시탈출 컬투쇼’ 진행을 맡아 재치있는 입담으로 많은 애청자를 보유하고 있다.

영암=한교진 기자

고향사랑기부 모금액 4억 돌파 영암군, 현장 홍보·이벤트 성과

전라남도 영암군의 올해 고향사랑기부 모금액이 6월 말 기준 4억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4억원 돌파 시점이 10월 말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성과는 4개월이나 앞당긴 것으로 영암군의 꾸준한 현장 홍보와 다양한 이벤트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15일 영암군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은 2억2000만원에서 182% 증가했고 기부건수는 1197건에서 3274건으로 274%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영암군은 올해 상반기 53개의 지역 안팎의 기관·기업을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했다.

현장 기부 이벤트도 함께 추진해 HD현대삼호를 포함한 대불산업단지 입주업체 임직원, 광주광역시민, 서울특별시민 등 576명으로부터 총 5670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벤트도 병행해 전국민의 기부행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오는 29일까지는 ‘영암군에 고향사랑 기부했소? 한우왔소!’ 이벤트로 신규기부자와 재기부에게 추첨을 거쳐 푸짐한 혜택을 제공하고, 30일과 31일 10만원 이상 기부자가 이벤트 한우상품을 주문하면 한우를 증량 제공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영주 영암군 홍보전략실장은 “고향사랑기부금 4억원 조기 달성은 영암군에 보내 준 기부자들의 성원 덕분이다. 앞으로도 현장을 돌며 다가가는 홍보로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영암=한교진 기자

최태성 역사 강사 초청 강연 내일 진도향토문화회관에서



전라남도 진도군은 17일 오후 2시 진도향토문화회관대공연장에서 최태성 강사를 초청해 ‘이순신이 선택한 진도’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한다

고 15일 밝혔다.

최태성 강사는 EBS, KBS, 역사저널 그날, tvN 별거벗은한국사 등 역사 프로그램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역사를 풀어내며 많은 국민에게 큰 사랑을 받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강사다.

이번 강연을 통해 진도군민과 소통하며 진도의 역사와 가치를 새롭게 조명할 예정이다.

이번 강연에는 관내 중고등학생 500명이 특별초청됐으며 청소년들에게 진도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다시 한번 배우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순신 장군이 지키고자 했던 진도의 중요성을 배우고 위기 속에서 발휘한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통해 꿈과 희망,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유익한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군민행복 아카데미를 통해 군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할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백재현 기자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무안군 남약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전라남도 무안군남약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4일 참가 청소년 23명을 대상으로 ‘마약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청소년들이 마약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유해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마약과 약물 남용의 심각성, 중독의 경로, 위기 상황 대응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청소년들의 공감과 경각심을 높였다.

오선희 주민생활과장은 “최근 마약과 유해물질이 청소년의 일상 속으로 점점 침투하고 있다”며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무안군이 지난달 16일부터 지난 9일까지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임산부 몸튼튼 요가 교실’을 운영했다. 사진은 남약·오룡지역 임산부들이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 무안군 제공

무안군, ‘임산부 몸튼튼 요가교실’ 운영

전라남도 무안군이 지난 6월16일부터 지난 9일까지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남약·오룡지역 임산부 20명을 대상으로 ‘임산부 몸튼튼 요가교실’을 운영했다.

15일 무안군에 따르면 이번 프로그램은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주 2회(오후 2시~3시), 총 8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임신 기간 중 신체 건강 유지와 정신적 안정, 건강한 출산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요가 강사의 지도로 △부종 완화 및 관절 유연성 향상 △골반 정렬 및 혈액순환 개선 △심신 안정을 위한 깊은 호흡법 △임산부 맞춤형 요가 동작 등 다양한 내용을 실습 중심으로 교육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임산부 요가 교실’ 외에도 △해피마미 출산준비교실

△베이비 마사지교실 등 임신·육아 관련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나 자세한 사항은 남약건강생활지원센터(061-450-500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철 무안군보건소장은 “이번 요가 교실은 임산부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무안=김행언 기자

목포시, 식중독 발생 예방 위생 점검

전라남도 목포시가 최근 무더위와 장마가 반복되면서 우려되는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위생 점검에 나섰다.

15일 목포시에 따르면 점검 대상은 여름철 소비가 급증하는 삼계탕, 냉면 등 배달 전문 음식점과 살모넬라

균 식중독의 주요 원인식품인 달걀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점인 감발 판매업소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식품위생팀장 5명의 점검반이 관내 배달 전문 음식점 20개소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위생모·마스크 착용 여부 △건강진단 실시 여부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소비기한 경과 또는 무표시 원료 사용·보관 여부 △방충망 설치, 폐기물 보관 상태 등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즉시시정·교육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가정에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살모넬라균 예방을 위해서는 △달걀이나 육류 등은 반드시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혀 조리 △조리 전·후 손을 깨끗이 세척 △칼·도마 등 조리기구용도별(육류·채소용 등)로 구분사용 △조리 된 음식은 가능한 빠른 섭취 등이 중요하다.

목포시 관계자는 “기온이 높은 여름철은 식중독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철저한 위생 점검과 함께 가정에서도 예방수칙을 잘 지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목포=정기찬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20년 연속 선정
신뢰할 수 있는 신문 전남일보